

소금언약 (레위기 2:11-16)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자주 당한다. 문제 당하면 대개는 두려워하거나 숨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항상 모든 문제를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 부딪히고 함께 언약 잡고 붙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코로나가 오래되어서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지만 코로나 무서워하면 안된다. 모든 신앙생활은 죽어 놓고 시작해야 한다. 살려고 신앙생활하면 여기저기 부딪힌다. 죽는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좋은 믿음이지만 세상에서 완전히 망한 사람이 진짜 믿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무서울게 없기 때문이다. 다 망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잡고,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승리하기 바란다.

오늘 우리는 내년도, 그리고 더 미래에 선교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포럼을 잠시 하겠다. 선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소원이므로 누구든지 해야 한다. 사복음서 끝에는 전부 선교이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다 선교이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세계선교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237이고 주로 라틴아메리카에 선교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전 세계 다 해야 하고, 그리고 인도도 연결되어 있는데 선교의 눈으로 보면 인도는 아주 매력적인 나라이다. 중국은 공산주의가 되어서 정부가 복음을 막는다. 그 비슷한 인구가 인도인데 인도는 그런게 없다. 멀어서 좀 그럴 뿐이다. 시작을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데이도 만들고 그런 것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매년 우리가 이 날을 지키려고 한다. 처음 우리에게 라틴 아메리카에 연결된 선교가 7년 정도 전이다. 지금은 RU학장으로 계신 김철연 선교사님이 남미 순회 선교사였다. 그 당시에는 엔세나다에 계셨다. 그래서 한번은 목회자 세미나 열테니 와서 메시지를 해달라고 했다. 그 때 마리오 전도사와 함께 갔다. 통역자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때 연결된 분이 리카르도 목사이다. 리카르도 목사의 복음에 대한 처음 반응은, 2박 3일동안 매시간 같은 이야기를 하길래 이걸 왜 자주 하나 하는 것이 첫 반응이었다. 그때 내가 언약기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 아는 것을 왜 자주 하라고 하나며 집에 그냥 던져 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6개월후에 다시 가서 또 하는데 본문은 다른데 다 같은 소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간증을 들어보니 어이가 없더라는 것이다. 다 아는 것을 왜 또 그 소리나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언약기도도 어느날부터 쓰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어느날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준 것이다. 같은 것을 매일 이야기하고 틀린 소리는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한 후 두세달 후에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광대같은 복장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백인 할머니를 만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 뭐하냐? 복음 전한다. 그랬더니 저녁에 식사 초대를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그러는데, 이야기 했다. 복음은 이런 것이고 선교는 이런 것이다. 이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한 두시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 할머니가 여기 아주사대학의 총장으로 교수로 여러해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은퇴를 할 때 엔세나다에 있는 선교센터로 퇴직금으로 받아서 거기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나중에 이 할머니가 이 선교센터를 리카르도 목사에게 물려줬는데, 이것이 리카르도에게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이다. 김철연 선교사님이 목회자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예배당이 지붕이 없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었다. 이것을 물려 받는다는 한 삼사년 걸렸고 땅만 22에이커이다. 한 3000-4500 SQ되는 집이 세 동이 거기 있다. 우리 갈 때 마다 거기서 잔다. 그리고 거기에 한 400-500명 들어가는 강당이 있다. 강당에 다락방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도 전부 합치면 50-60명정도는 잘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발전기가 있다. 자기들이 전기도 만들어 쓰고 우물도 있다. 그리고 자기 살고 있는 2베드룸 하우스와 관리인이 사는 2베드룸 하우스도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이 5-60명 되는 학교도 있다. 대단하다. 자기 인생에, 지붕도 없는 곳에 예배드리다가 어느날 뒤집어 저버린 것이다. 역전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리카르도 목사가 멕시코 시티에서 온 어떤 목사를 소개했다. 이름이 르네 목사이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저와 리카르도 목사, 마리오 목사도 같이 갔다. 가보니까 교회를 세 개를 하고 있었다. 첫날은 그 교회중에 제일 큰 교회에 가서 메시지 했는데 첫 강의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와이프를 찾아왔는데, 자기 신학교 가

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고 도와 달라고 했다. 이 청년이 호세아스 목사이다. 그 이후에 르네 목사교회에 한번 더 갔다. 그런데 이 르네 목사가 누림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누린다는 것이 무엇이나? 해야지, 뭐가 되어진다는 말이나? 이 단어를 못 넘어가는 것이다. 하도 이런 이야기를 하니가 두 번째 갔을 때에는 르네 목사 아파트에서 잤는데, 그때 마리오, 리카르도, 호세아스 이렇게 모여서 새벽 네시까지 팀사역을 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누림이 뭐냐, 해야지. 이래가지고 이 분은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고 갔다. 그런데 호세아스 목사 하나 남기고 싹 간 것이다. 그런데 호세아스 목사는 본래 그 교회 성도가 아니고, 이 목사가 집회를 해야 하니가 찬양인도 잘하는 청년을 초청한 것이다. 그 이후에 멕시코에 자꾸 문이 열리고 과테말라까지 문이 열리고 한 것이다. 그러다가 코로나 와서 2년 넘게 중단이 된 것이다. 그 동안에 한 5년했는데, 그때 연결된 분들을 세계 선교대회때마다 한국에 보내어 대구에서 훈련 받도록 한 네차례 정도 했다. 그리고 나서 차츰 사람이 늘어나서 마지막에 40여명 보냈다. 그때 우리가 매년 헌금한다고 성도님들이 수고 많으셨다. 처음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코로나기간까지 합치면 한 7년 정도인데, 우리 대신 보낼수 있는 목사 제자가 한 10명 정도 될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제자로서 우리 대신 보낼수 있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교회는 부흥이 되어가는 교회는 한 다섯 개 정도 되고, 성도는 한 5-70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와 일주일에 두 번 성경공부를 하는데, 거기 목사들, 평신도 제자들 2-30명 들어오고, 목사님들과의 모임이 따로 있다. 이것이 7년간 우리가 남미 사역을 한것에 대한 대체적인 정리이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얼마전에 지난 9월에 호세아스 목사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전화를 했다. 그런데 자기 교회는 툴루카에 있다. 멕시코 시티 옆에 있는 곳인데 엔세나다에 늘 와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왜 교회에 안가고 있냐고 하니가 자기는 교회에 안가도 된다고 하는 것이다. 자기가 안가도 교회에 메시지 할 사람이 3명이 있다는 것이다. 이 세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두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평신도이다. 정말로 안가도 되냐니까 안가도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가도 되면 선교사 하라고 하니가 선교사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처음부터 교회 개척부터 지금한 전부 200명 정도 되는데, 그 때부터 자기는 처음부터 이 교회에 평생 안 있고 선교사 할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냐고 물었더니 옆에 있던 리카르도 목사도 자기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야기 했다. 이거 장난 아니고 진짜 니가 대답을 정식으로 하라고 했다. 그리고 정식으로 질문하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다시 엔세나다에 가서 RU에 김상범 목사님과 같이 갔다.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갈건지 계획을 내라고 했다. 그래서 10월에 처음 간곳에 멕시코의 치아파스라는 곳과 과테말라에 갔다. 과테말라에 가서 코로나에 걸린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걸려도 걸린 사람과 7명 있었는데 5명걸리고 2명은 안 걸렸는데 같이 사는 것이다. 그 때 호세아스 목사와 리카르도 목사가 갔는데 호세아스 목사 교회에서는 4명의 평신도가 같이 갔다. 장로님 한분이 비행기표 다 사줘서 평신도도 같이 갔다. 그래서 호세아스 목사는 좀 다르다. 자기 교회 성도들 데리고 가서 훈련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다시 보냈다. 치아파스에. 사도바울처럼 다시 2차로 보낸 것이다. 거기에는 리카르도 목사와 이스라엘 목사를 같이 보냈다. 이스라엘 목사가 장로교 목사라고 몇 번 말했었다.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보내고, 그 다음에 리카르도 목사가 리카르도라는 같은 이름의 자기 랜치에서 일하는 평신도가 있다. 그 사람을 같이 데려가게 해달라고 했다. 왜냐니까 증인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감옥선교할 때 거기서 복음 받고 나와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 되어 버렸다. 감옥 전도 할 때 거기서 복음 받고 자기 교회 성도가 된 사람이 한 다섯명 되는데 그중 여자 한 사람과 리카르도 형제가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증인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케이 했다. 그런데 리카르도 목사는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선교센터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곳이 있다. 앞으로 미국 교회에도 중요한 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도 캘리포니아 어디에 있다. 그리고 호세아스 목사는 엘살바도르에서 10일 넘게 사역을 하고 어제 과테말라로 넘어간다고 카톡을 봤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았다. 와이파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엘살바도르에서 있었던 것을 사진이나 이런 것을 김태호 장로에게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다. 지금 과테말라에 와서 그전에 코로나 걸려서 잘 못한 곳에 다시 가서 하고 엘살바도르에서도 다섯 개 나라 문이 더 열렸다. 그리고 내년도 선교를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남미는 이제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복음 들고 가면 계속 문 열리게 되어 있다. 이것이 시작인데,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도 당연히 가야 한다. 내년도에는 4개 팀정도를 움직일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다. 아무나 보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부작용난다. 그래서 이렇게 보낼수 있는 사람이 한 100팀 정도 되면 어떨까 생각이 된다. 이 100팀이 각자 팀별로 선교 계획을 세우고 남미 전체를 도는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아무나 보내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서 20팀 정도 있으면 그래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미 선교에 대한 그림이다. 그리고 사도바울의 선교가 이런 선교였다. 성경학자들은 사도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선교를 더 많이 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남미는 지금 시작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말이다. 일단 인도나 동남아도 팀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중에도 남미 순회 선교사 하겠다는 목사나 선교사 나오면 당연히 파송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비대면으로 계속 성경공부하고 메시지하고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대로 가야하겠지만 이것이 일단 우리에게 주신 그림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마음이 부풀고 소망이 속에서 올라온다. 이런 의미있는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는 교회와 함께 렘넌트 운동, 다민족 운동과 함께 남미, 전세계 선교에 인생 전체를 드릴 마음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 혼자 하는게 아니라 함께 하기 바란다. 특히 언약잡은 산업인들에게 경제의 증거를 주시길 바란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는다. 100팀은 많은게 아니다. 일단은 100팀이다. 상상을 해보라. 인구가 전체 6억이 넘는다. 남미가. 나라는 36개나 된다. 그 중에 영어만 쓰는 나라도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기 바란다. 그리고 뜻이 있는 분들은 기도를 크게 해라. 그냥 내 인생에 잡혀 있으면 썩는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만 잡혀 있어서 썩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 일으킨다. 옆에 있는 바벨론을 크게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다. 거기에 잡혀간다. 거기 잡혀간 사람중에서도 출세한 사람이 있다. 돈을 크게 번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경제가 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전보다 다 돌아가지 않았다. 경제 때문에 거기 남아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 유대인의 후손들이 다운타운같은곳에 있다. 선교해야 한다. 크게 눈을 떠야 한다. 소박하게 아름답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다. 사람은 많고 다 죽어간다.

1. 소금언약

오늘 본문은 소제에 대한 말씀이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향기롭게 태우는 것이다. 1절부터 읽어보면 화덕에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태워서 드리기도 한다. 그리고 철판에 붙여서 드리는 것도 있다. 그리고 냄비에 넣어서 드리는 것도 있다. 곡식이니까. 전부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이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게 해서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다. 니가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이 향기가 전세계에 퍼져서 사람을 살릴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너는 성전에서 이 제사만 드려라. 그 다음은 내가 한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너는 그리스도만 고백해라. 그 다음 것은 내가 한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소제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했다. 누룩은 죄, 꿀은 세상적인 것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음에 세상적인 것을 섞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13절에는 이 소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섞으라고 하였다. 소금은 썩는 물건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것이 썩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소제는 주님이 세상에 소금이다. 그 말이다. 주님 외에는 세상이 재앙으로 썩어가는 것을 막을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소제에는 소금을 넣어라. 마태복음 5: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세상의 소금이므로 우리도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면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소금은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없어지지도 않고 다른 것을 썩는 것을 막고 오히려 살려준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가면 관광지처럼 있다. 전에는 바다였는데, 그것이 올라와서 소금이 거기에 있다. 그 소금은 썩지도 않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 소금은 썩어서 없어지는 법이 없다. 있는 그대로 늘 있다. 그

래서 세상에는 보면 주님을 설명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이 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소금이 그렇다. 그리고 동물의 피도 그렇다.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뿐 아니라 거류인도 피를 먹지 말고 피를 먹으면 백성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도 잠시 머무르는 사람일지라도 피를 먹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피를 먹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어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피는 음식이 아니다. 먹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뭘지 설명하고 그 언약으로 너희가 생명 얻으라고 내가 일부러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도 동물을 살릴 수 있다. 짐승중에도 이런게 있다. 그게 바로 양이다. 동네에서 양들을 보면 양들이 섞이는데, 그 양치기들이 아무도 걱정 안한다는 것이다. 해가 저서 집으로 양을 데려가는데 주인이 부르면 자기 양만 다 따라온다는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요한복음 10장 4-5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 놓고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는 것이다. 타인의 음성은 안따라가고 오히려 도망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은 죽여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다. 목을 찌르는데,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 말없이 가만히 죽었다. 이 놀라운 양처럼 소금 또한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이다. 우리 언약 그리스도는 소금 언약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변함이 없다. 절대로 썩는 일이 없다. 오히려 썩어가는 나를 살린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살고 싶다면, 반드시 살고 싶다면 그리스도 해야 한다. 대충 살고 싶은가? 어쩌다 돈으로 살아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살고 싶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된다. 사람 말을 따라가면 되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사람은 잘못하면 불신앙소리 할수 있다. 거기 왜 따라가는가? 바보같이. 진짜 살고 싶나? 진짜 그리스도 하면 반드시 사는 것이다. 간단하다.

그래서 언약되신 그리스도가 이런 언약의 힘이 있음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절하면 안된다. 변질되어서도 안된다. 오직 그리스도. 끝까지 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2. 참된 기도

언약이 있으면 기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이 있기에 이제 남은 것은 기도라는 메시지 많이 듣는다. 내 기도가 어떤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언약인데, 어쩌서 기도나고 질문할수 있다. 기도를 통하여 언약을 누리기 때문이다. 기도 안에 언약이 없는 기도는 참된 기도라고 할수 없다. 여전히 기도이다. 그런 기도 할수 있고, 해야 할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 장애 문제가 끝났으면 문제 안 오면 좋겠는데 올해 또 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 주신 것이 딱 하나 언약이다. 이것은 니가 우습게 볼게 아니고 모든 문제를 이거 하나로 해결할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언약 잡아야 한다. 언약이 힘이기 때문에. 기도는 방법이니깐. 그리고 그 언약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 잘 안될 수도 있다. 내 기도를 막 하고 싶으니깐. 자꾸 기도해서 내 기도를 바꿔야 한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더 은혜되고 더 능력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사람이 언약이 없으면 기도도 매달릴 수밖에 없다. 문제가 오니까.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한다. 마음에. 더 효과적이고 참된 기도 하려면 언약을 강조해야 한다. 언약이 그리스도가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약을 먼저 잡아야 하고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사단이 꺾인다. 하나님 꺾어주신다고 기도하면 꺾어줄수도 있다. 그러나 매일 역사하는 사단에게 그렇게 하려면 힘들어 죽는다. 언약을 잡고 안보이게 계속해야 한다. 언약을 잡고 그림을 그리고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그래야 하는가.. 마태복음 12: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 창 3:15절 뱀의 머리를 깨야돼, 그것이 근본치유, 완전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 임시방편이다. 뱀의 머리를 깨뜨려야 한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보다 뱀의 머리를 깨신 그리스도를 먼저 설명했다. 내 죄를 지신 그리스도보다 뱀의 머리를 깨신 그리스도를 먼저 설명했다. 사단을 꺾고 흑암세력을 무너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이다. 언약을 가진 자의 기도, 참된 기도이다. 다른 기도 기도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이 기도가 근본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뿐만 아니라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그 때 놀라운 치유와 함께 많은 응답을 누리기 바란다. 그래서 땅끝까지 남미 끝까지 한 시대의 증인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한다.